

이번주 신간은… 〈크리슈나무르티와 함께한 1001번의 점심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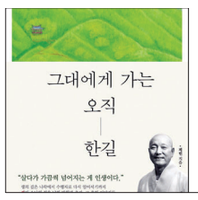
저자 마이클 크로닌/옮긴이 강도은/열림원 펴냄/1만 5천원

이 책은 20세기 최고의 사상가이자 명상가, 철학자 등으로 불린 '정신적 스승' 크리슈나무르티의 식사를 10여 년간 책임져온 요리사 마이클 크로닌이 쓴 책이다. 저자는 크리슈나무르티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들과 그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일상적 면모를 순박하고도 따스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31~9/6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붓다의 철학(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이중표	불광출판사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각성스님/응해스님	비움과소통
3	그대는 꽃입니다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8	위빠사나 명상일기	영선	운주사
4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9	생물이 들려주는 철학이야기	정화스님	법공양
5	공덕(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법보신문	모과나무	10	후회없는 죽음, 아름다운 삶	로드니 스미스/이향엽	담앤북스

"살다가 가끔씩 넘어지는 게 人生이다"



그대에게 가는 오직 한길

제민 지음/마음서재 펴냄/1만 4천원

등운암서 적석사까지
젊은 날의 방황과 출가,
진리 향한 구도의 여정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입산 출가해 수행한 것"

진솔히 써내려간 출세간의
삶과 깨달음의 순간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제민 스님의 출가와 구도 여정을 담은 첫 에세이다. 너무나 인간적인 한 수행자의 방황과 출가, 그리고 20여 년에 이르는 구도기를 통해 온전한 행복에 이르는 삶의 길을 보여준다. 계룡산 등운암을 지키던 시절부터 부여 무량사를 거쳐 강화도 적석사에 이르기까지 출가 수행자로 살아오며 맞닥뜨린 질문들과 일상서 얻은 소소한 깨달음에 대해 들려준다. 삶과 죽음, 행복, 관계, 욕망, 수행, 자연에 관한 생각들도 아우른다.

출가 수행자로 살기 전,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자 연인이었다.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엔지니어였고, 원대한 포부를 지닌 청년 사업가였다. 세상의 문턱에 걸려 넘어져 폐인이나 다름없이 살던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뜻밖에도 불교였다. 불교에 귀의하기 전까지 부처가 뭔지, 삼보가 뭔지도 모르던 그에게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다. 그렇게 운명처럼 시작된 구도의 길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스스로 깨친 것들을 이 책에 오롯이 담아냈다.

번뇌에 휘둘리는 삶, 누구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걸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숨을 고를 사이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이 자기를 비춰보게 해주는 맑은 물이자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계룡산이 품은 절집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등운암. 세상보다 하늘이 더 가까운 그곳에 묵언수행을 즐기는 산승이 살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데다 양철지붕을 올린 허술한 법당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살림이었다. 행자 수업을 마치고 사미가 된 지 겨우 2년 만에 등운암 살림을 맡게 된 스님은 이곳을 수행처로 진리를 향한 오직 한길을 떠난다.

"살다가 가끔씩 넘어지는 게 인생이다" 삶의 문턱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저자가 떠올리는 은사 스님의 말씀이다. 넘어진 그 자리서 툭툭 털고 일어나 부처님에게로 가는 오직 한길을 뚜벅뚜벅 걷는 저자는 천생 수행자다. 밝히기 부끄러운 경험조차 담담하게 들려주는데, 이야기의 행간서 치열한 수행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전에 실린 지혜의 말씀도 소개하며, 불교의 참뜻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전달한다. 저물녘 산사에 은은히 울리는 종소리처럼 잠든 영혼을 깨우고 지친 마음에 쉼표를 그려주는 책이다.

출가 수행자라 해서 괴롭지 않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다. 그 역시 뜨거운 피가 흐르고, 마음의 경계에 부딪히면 좋고 싫은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는 인간이다. 다만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며, 바로 알아차리고 돌이키기에 우리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저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인간적 고뇌를 솔직하게 들려줌으로써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녹여내는 법을 보여준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고매한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함을 에둘러 말한다.

이외에도 산중 암자에 사는 동안 저자가 겪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뭉클하고 가슴 찡한 여운을 남긴다. 출가 전 만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 아들이 추위에 떨까 봐 무거운 담요를 이고 산을 올라온 어머니의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고 번민하는 모습이 실로 인간적이다.

"내심 반갑기도 했지만 딱히 말할 수 없는 아픔 같은 것이 가슴 한쪽을 아련하게 찔렀습니다. (…) 불현듯 찾아온 그 여인의 눈빛을 보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자는 산사의 사계를 오롯이 느끼며 매순간 살아 있음을 자각한다. 말없이 큰 가르침을 들려주는 자연은 그에게 또 하나의 크나큰 스승이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경전의 경구를 들려준다.

"물이 흐리거나, 뜨거운 불에 끓고 있거나, 이끼로 덮여 있다면, 자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물이 흐리거나 불에 끓고 있거나 이끼로 덮여 있다면, 우리는 그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없다. 이것은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늘 허둥대는 상태, 즉 끊임없이 번뇌에 빠지는 것을 비유한다. 번뇌에 휘둘리는 삶, 누구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걸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숨을 고를 사이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이 자기를 비춰보게 해주는 맑은 물이자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붓다 마인드

앤드류 올렌즈키 지음/박재용 · 강병화 옮김/1만 5천원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할까?



이 책은 욕망하고 분노하는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2,500년 전 붓다는 인도의 옛 도시 가야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무엇으로 불타고 있는가? 탐욕과 분노와 무지로 불타오르고 있다." 탐욕과 분노와 무지로 불타오른다는 붓다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 과연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저자 앤드류 올렌즈키는 이 같은 물음을 불교철학적 그리고 현상학적으로 사유하면서 우리 마음의 근본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그 일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현대사회가 처한 문제를 불교이론과 수행을 통해 접근한다. 또 심리학을 빌려오고 현상학적 관점에 서서 우리를 제약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자동반응적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마음 근본 문제 해결책 제시
불교이론과 수행 통한 접근법

이 책 원제는 'Unlimiting Mind'이다. 문자 그대로 풀면 '마음의 제약을 풀기'쯤 될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 제약되고 구속된 일상의 마음을 해방시켜 평안한 마음으로 되돌아가자는 의도를 담았다.

제 1장에서는 더 큰 틀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설명한다. 붓다 입장에서 인간 내면의 경험세계를 보면, 우리는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가상세계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매트릭스와 다른 점은 인공지능 대신 자신이 그 중심부에 위치하며 자신의 관점서 세계를 구성하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붓다의 제언은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는 것이다. 즉 수행을 통해 자신이 처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다. 이어 제 3장에서는 의식의 문제를 이른바 주관적 마음과 객관적 뇌 어디에 놓고 풀어야 하는지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밝히며, 우리가 자신만의 가상세계를 어떻게 창조해내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망상이 어떻게 실재의 본성을 오인하고 있는지 현상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4장서는 수행을 통한 극복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인간은 본성상 한 번에 하나씩만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기에 주의의 분산을 불러오는 산란한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에 대상에 오로지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마지막 제 8장서는 마음챙김의 진정한 의미를 불교의 전통 가르침인 아비담마의 논의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마음챙김이 단순한 집중의 기술 그 이상인, 여러 다른 선한 마음들을 수반하는 윤리적 성격의 마음상태임을 강조하고, 마음챙김과 관련된 마음상태들을 간략하게 해설한다.

한편 저자인 앤드류 올렌즈키는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불교 수행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랭카스터 대학서 철학박사를 취득했고, 하버드대와 페라데니야대학(스리랑카)에서도 불교학을 전공했다. 위빠사나 명상 단체인 통찰명상 협회와 배리불교연구소 상임이사를 지냈으며, 마음과 생명 연구소에서 명상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현재는 수행과 연구를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인 통합 다르마 연구소를 설립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Tricycle: The Buddhist Review' 등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쓴다.

김주일 기자

선禪으로 송시를 보다!

송시의 선학적 이해



송대의 시가詩歌는 어떻게 중국 문학의 최고봉이 되었는가?

송시는 선적인 사유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였기에 그들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박영환 지음 / 536쪽 / 값 27,000원

부처님께 드리는 100가지 기도!

부처님 광명 기원문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비와 지혜를 증진시키는 기도발원문!

간결하면서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발원문과 동자승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원성 스님의 그림이 감동과 평온을 선물한다.

성운대사 글, 조은자 옮김 / 440쪽 / 전면컬러 / 값 23,000원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료하고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이다.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윤회와 인과의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200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